



발간자료

• **방산(Overweight):** 재고 소진: 중동전쟁으로 美 Patriot 요격미사일 재고 최소 65%, THAAD 최소 38% 소진 — 전쟁 이전 수준 복구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 전망. 정부 대응: 트럼프 행정부가 록히드마틴·RTX 등과 7년짜리 프레임워크 체결, 패트리엇·사드 생산능력 3~4배 확대(THAAD 350억달러/7년, PAC-3 MSE 586억달러/7년, Tomahawk 229억달러/7년 등). 실적: LMT 잔고 2,300억달러(사상 최대)로 FY26 가이드스 상향, RTX도 상향(레이시온 영업이익 전망 2.75~3.75억→5.75~6.5억달러로 대폭 상향). 실적보다 중요한 변수는 예산: FY2027 미사일 예산 70십억달러 중 약 55%(40십억달러)가 미통과 350십억달러 reconciliation 법안에 포함 — 연말~내년초 예산 결과가 프레임워크의 실제계약 전환 여부 결정

(조선/기계/방산 최광식)

• **자동차(Overweight):** 원/엔 환율 하락 추세 종료 가능성 부각. 현대기아차가 일본 자동차 회사 대비 수출시장에서 환율상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. 7월부터 HMGMA에서 스포티지, 팰리세이드, 투싼이 순차적으로 양산 예정이며, 글로벌 판매호조를 동반하고 있는 기아 Top Pick. HMGMA 양산 시작 4년차와 원/엔 환율 반등 시점의 동행에 따라 현대기아 밸류에이션의 절대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

(자동차/이차전자 유지웅)

• **이수페타시스/BUY/18만원:** 25년 이후 OPM이 10% 후반에서 정체됐으나 하반기부터 이익률 개선 본격화 전망. 페타시스 별도 기준 OPM 20%대 진입 가시화. ① 주요 고객사 판가 14~16% 인상, ② 멀티램 수출 개선(60%대 → 80%대), ③ 고객사 다변화 및 CAPA 증설 효과가 동시에 진전. 판가 인상 효과는 4Q26부터 본격 반영 예상. 26년 영업이익 3,538억원, 27년 5,149억원 전망. 적정주가 18만원 유지

(전기전자 김연미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투자등급 비율

BUY : 93.5% HOLD : 6.5% SELL : 0.0%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이상 ~ +15% 미만
- SELL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미만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

·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·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·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